

研究論文

한국에서 사회주의와 근대의 의미* - 하나의 해석 -

최치원**

I. 문제제기	III. 이념과 현실
II. 사회주의와 근대	IV. 맺는 말

I. 문제제기

한국의 역사에서 ‘사회주의’ 개념이 언제 어디로부터 그리고 누구에 의해 현재에 쓰이고 있는 대로의 사회주의로 번역되어 그 의미가 자리를 잡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규정을 내리기는 힘들다. 단지 1884년 1월 18일자 한성순보(漢城旬報)의 서양문물소개 기사에서 우리는 ‘사회주의’란 단어를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이후에 독립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에서도 ‘사회주의’ 혹은 ‘사회주의자’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해외의 동향을 알린다는 의미에서 사용된다.¹⁾

1884년에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한국에 최초로 소개된 해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독일에서 강력한 사회주의의 전통을 가진 도시들 중의 하나인 브레멘(Bremen)에서 사회주의자 빌헬름 립크네히트(Wilhelm Liebknecht)²⁾가 제국의회

* 본 논문에 대해 비판과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심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조교수 정치·사회철학 전공
 1) 임경석, 『한국사회주의의 기원』(역사비평사 2003), 27 쪽 이하
 2) 그는 아우크스트 베벨(August Bebel)과 더불어 1869년의 독일 사회민주주의노동당의 창시자이다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되는 해이기도 하다. 여기서 근대의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난다. 지구의 한 쪽에서 사회주의가 노동자의 조직력과 결합되어 의회주의로 발전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지구의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주의가 막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된다.

사회주의는 전형적인 서구적 근대의 산물이다. 그것은 계몽과 자유주의의 딸이다. 그것의 탄생은 정치적으로는 프랑스 혁명기와 맞물리며, 사회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이 유아기 단계를 벗어난 시간대(영국과 프랑스) 내지는 아직 유아기 단계에 머물고 있던 시간대(독일)와 관계한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운동의 이념사”³⁾ 속에서 탄생하였으며, 소위 말하는 “위대한 사회주의자들”⁴⁾은 그것에 이론적·철학적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운동의 이념사’ 혹은 ‘위대한 사회주의자’라는 의미에서 사회주의 수용이전의 우리의 상황에 대해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 예컨대 이상사회에 관한 전설이나 설화 속의 등장인물들 혹은 이런 인물들을 만들어 낸 저자들이 사회주의의 이론적·철학적 기반으로 고려될 수 있을까? 혹은 “감찰적 유교국가를 제시한 정약용이나 “유교적 강대국가”를 꿈꾼 박지원⁵⁾ 등이 한국 사회주의의 정신적 아버지들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인가?⁶⁾ 아니면 파한집(破閑集)에서 시작하여 허생전(許生傳), 홍길동전 그리고 정감록(鄭鑑錄)을 거쳐 동학사상, 급기야는 갑오농민전쟁에 이르는 장구한 “이상향에 대한 염원” 혹은 “이상향에 관한 오랜 전통”이 한국 사회주의의 탄생의 “내적 근거”⁷⁾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갑오농민전쟁이라는 민중적 저항에 “주요한 동인”을 제공한 “종교적 이상주의”⁸⁾가 우리에게 있어 사회주의의 이론적·철학적 기반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 것인가?

요컨대 우리의 경우 전통 역사에서 부지기수로 발견되는 것들이 반란, 의적, 역

그의 아들이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와 함께 스파르타쿠스동맹(Spartakusbund)을 주도한 혁명가 칼 립크네히트(Karl Liebknecht)이다

3) Hofmann, Werner, *Ideengeschichte der sozialen Bewegung*, Berlin/New York, 1979 참조

4) Ramm, Thilo, *Die grossen Sozialisten als Rechts-und Sozialphilosophen. Bd. 1. Die Vorläufer Die Theoretiker des Endstadiums*, Stuttgart, 1955 참조

5) 배병삼, 「박지원의 유포피야: ‘허생전’의 정치학적 독해」, 『정치사상연구』, 9집 가을호(2003), 7, 11쪽

6) 이 경우 정약용의 여전법(閔田法) 사상을 일종의 농촌사회주의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7) 임경석, 앞의 책, 18-26쪽.

8) 신복룡, 『전봉준 평전』(지식산업사, 1996), 220, 272쪽.

모, 정변 패사사건, 민란, 농민전쟁 등이다. 만약 이런 것들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이상사회에 대한 그 어떤 통상적인 관념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오랜 낮익은 이미지”로서 이해될 수 있다면, 그것들은 사회주의가 “곧바로 내재화”⁹⁾되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전통에 입각해 모든 나라에 다 사회주의 사상의 기원이 있었다든지 혹은 사회주의와 특별히 의미 있게 관련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가정 된다면,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간과될 수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라는 물질 토대에 기반한 ‘bürgerliche Gesellschaft’¹⁰⁾, 즉 시민사회 혹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본주의적 부르주아 사회’ 속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형태의 근대적 이념이라는 점이다.

한국에서 사회주의 수용이전에 하나의 자본주의적 부르주아 사회의 역사가 전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서구적 고유개념이었던 사회주의를 한국적 맥락 속에서 접근해 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준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사회주의의 발전이 일제 식민지배 하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강력한 반제국주의 투쟁의 필연성에 의해 촉발된 동구적 사회주의 형태인 레닌·스탈린주의의 수용은 한국에서 사회주의의 모습을 분명 서구적 의미의 그것과는 다른 형태로 결정짓는 요소였다. 그것은 또한 한국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규정 및 개념과 성격을 서구의 그것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이러한 사회주의의 모습들에 관한 논의는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화되었으며, 그에 관한 성과들이 연구서 혹은 번역서 등의 형식으로 많이 출간되었다.¹¹⁾ 이들 단행본들에는 투쟁이라는 구체적 실천 속에서 전개되는

9) 임경석, 앞의 책, 26쪽

10) Hegel, G. W. Friedrich,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es*, Hamburg, 1967, §182~§256 참조

11) 다음의 단행본들이 대표적인 연구업적들이다. 서대숙, 현대사연구회(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연구』(화다, 1985); 스칼라피노·이정식, 한홍구(역), 『한국공산주의 운동사I: 식민지시대 편』(돌베개, 1986); 이정식, 김성환(역), 『조선노동당 역사』(이론과 실천 1986); 고준석, 김영철 옮김, 『조선공산당과 코민테른』(공동체, 1989); 김창순·김준엽, 『한국공산주의 운동사』~V』(청계연구소, 1972 ff.). 특히 ‘한국역사연구회 1930년대 연구반’의 『일제하 사회주의 운동사』(한길사, 1991)는 진보적 입장에서 사회주의운동을 체계화시킨 최초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좌파에 대한 대표적 연구 성과로는 김남식, 『남로당 연구 I-III』(돌베개, 1984 ff.); 고준석, 김영철 옮김 『조선공산당과 코민테른』(공동체, 1988); 김남식·심지연, 『박헌영 노선비판』(세계, 1986) 등이 있다. 한국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현황과 전망에 대한 관심은 역사학연구소,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연구 현황

사회주의 각 단체들이나 사회주의자 개개인들의 활동상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변용된 사회주의의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사회주의가 서구와는 다른 역사적 경험 속에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에 관해 (다시 말해 그러한 의미를 해석해 볼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논의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제를 좀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필요하다면 서구와의 연계 속에서도 논의를 진행시킬 것이다.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차후의 보다 상세한 연구를 위한 하나의 지적인 지도, 즉 패러다임(paradigm)을 만들어 가는 데 있다.

II. 사회주의와 근대

1. 사회주의와 근대성의 이념

한국에서 사회주의가 하나의 사조로서 (주로 일본을 통해) 지식인들 중심으로 수용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1923년 전후이다. 1883/4년 한국에 최초로 사회주의가 소개된 뒤 거의 40년만의 일이다. 1917년 8월에 상해에서 신규식을 중심으로 조선사회당이 조직된다. 신규식은 민족주의자였고, 조선사회당의 전신은 청년인재양성과 중국혁명기들과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1912년 조직된 동계사(同濟社)였지만, 사회당의 이름을 가진 최초의 단체였다. 1918년 1월에는 이르쿠츠크에서 공산당 한국지부가, 그리고 하바로프스크에서는 이동휘 중심의 한인사회당이 조직된다. 사회주의를 국내에서 “최초로 운위”한 단체는 1919년 4월에 결성된 대동단(大同團)이라한다. 대동단 역시 사회주의운동과는 무관한 민족단체였지만 “사회주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령의 한 곳에다 명기¹²⁾했다는 것이다. 이후 각 조직과 단체들 간의 반목과 대립 내지는 분열 그리고 해체와 통합의 과정이 반복되고,

과 전망』(아세아문화사, 1997)을 참조할 수 있다

12) 이반송, 한대희(편역), 『식민지시대 사회운동』(한울림, 1986), 11쪽. 이반송은 이에 대한 근거로서 1920년 12월 7일의 대동단사건 판결문을 제시한다. 이반송은 이를 국내에서 공산주의운동의 탄생 시점으로 보고 있다.

일제말기의 잠복기를 거치면서 한국에서 사회주의가 전개된다.¹³⁾ 그리고 해방 후에 사회주의는 하나의 완숙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전체 역사 과정들 속에서 나타난 사회주의가 우리에게 갖는 내적 의미는 무엇일까? ‘사회주의 개념을 국내에 최초로 소개한 비슷한 시기의 한성순보에서 읽어 낼 수 있는 하나의 근대적 의식은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것 같다. 개념이 소개되는 해인 1884년보다 3개월 전인 1883년 10월 31일자의 한성순보는 서구의 예를 들어 ‘사회당을 한편에서는 “귀천과 빈부를 평등하게 하는 것”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국법을 문란케 하고 생민(生民)에게 해를 끼치는 단체들” 아니면 “백성들에게 해독을 끼치는”¹⁴⁾ 존재일 뿐이라고 하여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다. 서구의 근대성은 이처럼 이미 우리의 의식 속에서 축복과 저주라는 야누스적 모습으로 포착되어 있다.

이러한 양면적 의식 속에는 원초적 의미에서 막연하나마 사회주의에 대한 하나의 규정 형태가 담겨져 있다. 그 속에는 차후에 한국에서 전개될 사회주의의 미래의 모습도 반영되어 있다. ‘귀천과 빈부를 평등하게 하기 위한 생각과 그러한 것을 백성에 대한 ‘해’ 혹은 ‘해독’으로 보려는 생각의 대립적 구도가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구도가 우리에게서 단순히 막연한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도 합리적인 이념의 모습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산업화에 의해 뒷받침된 자본주의적 (부르주아) 사회라는 의미의 근대적 사회가 형성되어가는 1920년대라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전개의 물적 토대로서 자본주의가 형성되는 이 시기에 사회주의가 지식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모든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근대의 산물로서 사회주의의 의미를 기존 사상과의 연관 속에서 그리고 현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문제의 해결은 그러므로 근대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서구에서 근대의 의미는 어디서 찾아질 수 있는가? 헤겔(Georg W. Friedrich Hegel)의 철학적 사유는 이를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유럽인은 세계에 관심

13) 이에 관해서는 무엇보다 장복성, 『조선공산당과쟁사』, 편집부 편, 『현대사 자료집 3』 (돌베개 1983) 참조. 전향한 공산주의자 장복성은 폭로 고발적인 의도를 갖고 한국에서 사회주의의 발전 문제에 접근하고 있지만, 그런 만큼 상세하게 내부의 파벌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

14) 임경석, 앞의 책, 26~28쪽.

을 갖고, 세계를 인식하려 하며, 자신에 대립되어 있는 타자를 동화시키려 하고, 세계를 분류식별(Besonderungen)하는 가운데 유형(Gattung), 법칙, 보편자, 관념 내적 합리성(Vernünftigkeit)을 해명한다.”¹⁵⁾

필자는 근대 혹은 근대성을 세계를 대상으로 하여 이에 대한 하나의 상(像)을 만드는 (유형, 법칙 혹은 보편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적 합리성을 해명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합리적 의식문화라고 이해하고자 한다.

2. 사회주의에 나타난 의미 양상들

1)

사회주의의 수용 속에서 그리고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은 일련의 역사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주의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를 헤겔의 철학적 사유에 기반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사회주의를 통해 한국인이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즉 한국에서 사회주의를 통해 얻게 된 근대성은 서구에서 이해되는 것과 같은 합리성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일제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해방 공간은 한국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합리적인 세계이해의 방식이 잘 표출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토지개혁의 옳은 노선’(1947)은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에서 이루어진 토지개혁의 의의를 비교 설명한 뒤, 한국적 상황을 매우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¹⁶⁾ ‘노선’에서 세계는 분류 식별되며 세계에 대한 하나의 내적 합리성이 해명된다.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세계상이다. ‘귀천과 빈부를 평등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주의는 이처럼 하나의 체계적인 이념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로당의 당수였던 박헌영의 생각 속에서 그러한 세계이해 방식은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사회주의를 일제의 압제 하에서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20유 여년” 동안에 걸쳐서 “조선독립과 토지문제해결, 즉 봉건잔재 청산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의 길”을 열어 준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한다. 그것은 그에게 발전과 진보의 이념이며, 또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8시간 노동제 실시, 인민생활의

15) Hegel, Georg W. Friedrich, *Berliner Schriften*, Hamburg, 1956, pp. 77f.

16) 전국농민총연맹 선전부, 『남로당연구 II 자료편』, 김남식(역음)(돌베개 1988), 자료 64 참조

급진적 향상 등의 민주주의개혁의 기본요구를 들고 나와 싸운”¹⁷⁾ 투쟁의 현실이다. 이러한 이해 방식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어서 예컨대 독일의 브레멘이라는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것, 즉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우리의 선행자들의 길고도 힘겨운 투쟁”¹⁸⁾이라는 이해방식과 별로 큰 차이를 느끼게 해주지 않는다.

근대를 특징짓는 합리적 세계이해 방식은 이처럼 인류사적·세계사적 공통점을 갖는다. 박헌영은 2차 세계대전을 파시즘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로 이해한다 그것은 그에게 “인류사적 의의”¹⁹⁾를 갖는다. 근대에 대한 이러한 식의 의미부여는 예컨대 독일의 사회주의자 오토 벨츠(Otto Wels)의 그것과 유사하다 벨츠는 히틀러(Adolf Hitler)의 수권법(Ermächtigungsgesetz)을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는” 시도로 비판하고 민주주의의 미래, 즉 “인간성과 정의 그리고 자유 및 사회주의의 기본원칙들”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제시한다²⁰⁾

그러므로 한국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문제가 “[...] 남편에게 지배 예속에 있는 부인의, 종교적 미신에 대한 계몽의, 기사적 영웅적 유태(遊惰)에 대한 산업의, 중세적 특권에 대한 시민적 평등권리의, [...] 귀족정치의 안시안 레지움(舊政體)에 대한 자유의 민주주의적 공화제 국가형태 등등의 승리”의 문제와 연결되고, “조선혁명의 임무”가 바로 이러한 특성의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²¹⁾으로 이해된다 해도 전혀 놀랄만한 것은 아니다.

시대나 장소를 초월해 사회주의적 근대성을 전형적으로 특징짓는 민주주의의 승리²²⁾에 대한 이념은 어디서나 나타나고 있다. 사회주의가 어떤 식으로 이해되든

17) 박헌영, 「李承晩氏의 <테마>를 폭로한다(上, 下)」, 김남식·심지연 편자, 『박헌영 노선비판』(세계, 1986), 자료 83, 324 쪽

18) Paulmann, Christian, *Die Sozialdemokratie in Bremen 1964-1864*, Bremen, 1964, p. 164.

19) 박헌영, 「<파시즘>을 근절하자」, 김남식·심지연 편자, 『박헌영 노선비판』, 자료 82, 321 쪽

20) Otto Wels, *Rede zur Begründung der Ablehnung des Ermächtigungsgesetzes(Reichstagsitzung vom 23. März 1933 in der Berliner Krolloper)* <http://www.dhm.de/lemo/html/dokumente/wels/index.html> (검색일 2004. 5. 22).

21) 김동환, 「조선 혁명의 현단계 <부루조아 민주주의 혁명>에 관한 일고」, 심지연 『조선혁명론 해방정국 논쟁사2』(실천신서, 1987), 자료 5, 135~139쪽

22) Hobsbawm, Eric, *Age of Extremes. The Short Twentieth Century 1914-1991*, London, 1997, pp. 1-17.

간에 그 핵심을 이루는 것은 세계와 역사에 대해 분명한 의미 부여였다. 여운형에 있어 그것은 “완전독립 민주주의 국가” 혹은 “전 근로대중의 완전한 해방”²³⁾이며, 백남운에 있어서는 “연합성 신민주주의”²⁴⁾이다. 각각의 세계이해 방식은 뉘앙스는 다를 수 있겠지만 ‘공산당선언’에 담긴 “민주주의 쟁취투쟁(Erkämpfung)”²⁵⁾의 이념에 담긴 의미와는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만큼 세계이해의 방식은 서구나 한국에서나 합리적이다.

2)

세계에 대한 합리적 이해방식은 진보당의 강령에도 나와 있지만, “자본주의의 공죄(功罪)”를 세계사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영국과 미국의 사례 속에서 자본주의의 “수정 내지는 변혁”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 속에서 그리고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혹은 핀란드식 “사회주의적 복지국가 건설”의 필요성²⁶⁾을 역설하는 방식 속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그것은 정권에 대한 비판에서 절정에 이른다. “현정권의 사회적 정치적 기반은 매관자본계급과 특권적 관료이며 그 경제적 기반은 일제로부터 인수한 국가적 독점기업과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원조이다.”²⁷⁾

진보당이 지향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민주주의” 건설과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²⁸⁾에 대한 이념은 앞서도 언급되었지만 당대의 서구 세계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없다. 더구나 코민테른을 “일괴암적(一塊岩的)” 국제조직체로 간주하거나, 혹은 소련과 그의 위성제국의 “무자비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혹은 “소비에트식 독재”가 국가권력을 절대화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배반”했다고 비판하는 등의 자세 속에는 미래에 대한 하나의 합리적 세계상이 예측되어 있다. 그것은 19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에 세계적으로 실현된 근대성(=

23) 여운형, 「인민당의 노선」, 심지연(편), 『인민당 연구』(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1991), 제 4부 자료편, 229쪽

24) 백남운, 「조선민족 진로」, 심지연(편), 『조선혁명론 해방정국 논쟁사 2』(실천신서 1987), 자료 11, 158쪽 이하

25) Marx, Karl · Engels Friedrich, *MEW Bd. 4*, Berlin, 1959, p. 481.

26) 조봉암, 「진보당의 강령정책」, 정태영, 『조봉암과 진보당』 제5부 자료집(한길사, 1991), 566-574쪽

27) 위의 글, 586쪽

28) 위의 글, 570, 587쪽

독재적 현실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의 필연성)이다.

현재 우리는 남한의 경우에만 국한시켜 볼 때, 결과적으로는 사회주의의 배척에 나타난 모습, 요컨대 ‘국법을 문란케 하고 생민에게 해’를 끼치는 혹은 ‘백성들에게 해독’을 끼치는 사회주의의 모습만을 포착할 수밖에 없다. 그 모습은 해방 이후의 좌우대립의 상황 속에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났다. 진보당 사건(1958)과 조봉암의 죽음(1959)이 갖고 있는 내적 의미는 그러한 모습의 상징적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결론론적이긴 하지만 진보당 사건 이후 한국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사회주의라는 하나의 세계이해 방식이 더 이상 의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²⁹⁾

사회주의로 표현되는 ‘귀천과 빈부를 평등하게 하는’ 하나의 합리적 세계이해 방식에 대한 거부 모습은 여러 측면에서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다.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는다’며 1961년에 등장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쿠데타 세력의 등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쿠데타 세력은 소급법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혁신계’ 인사들을 탄압한다. 이후로 한민당 韓民黨이 토지의 국유화나 산업화를 이야기 하거나, 조봉암 같은 인물이 반공주의자인 이승만 같은 인물에 의해 초대 내각의 농림장관으로 기용되는 것과 같은 1940년대의 일들은 한국의 역사에서는 다시 전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후로 사회주의라는 말 자체도, 그리고 거기에 ‘한국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뭔가 말하는 상황조차도 전개되지 않는다.³⁰⁾

29) 폭력 노선을 거부하고 의회주의적 방법으로 사회주의적 근대성을 관철시키려는 진보당이 표방한 것과 같은 이념이 한국에서는 거부되는 상황을 사상의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은 하나의 흥미로운 연구주제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그 의미를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문제는 재판과정이다. 당시 재판장이 한 피고인에 “사회민주주의가 도대체 뭐요?”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것은 재판관들이나 검사들에게 ‘사회민주주의’ 혹은 ‘민주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전혀 개념이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다음의 사실에도 해당되는 데, 그것은 재판상 필요한 진보당의 정강·정책의 분석을 위한 “정치학 저작”이 국내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1920년대 일본서적”을 참고 했어야 했는데 (재판하는 데) “에떡었냐 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영석, 『죽산 조봉암: 그의 슬픈 삶과 죽음의 이야기』(원음출판사, 1983), 39쪽 참조. 이런 척박한 정신적 상황에서 가장 온건한 사회주의가 한국에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30) 이 점에서 이동화가 『사상계(思想界)』에 기고한 (上편과 中편은 각각 1960년 11월 호와 1961년 1월호에 발표되는데, 下편은 끝내 발표되지 않는다) ‘한국적 사회주의의 갈: 험난한 과거를 더듬고 미래를 전망한다’ [김학준, 『이동화 평전 한 사회민주주의자의 생애』(민음사, 1987), 231쪽 이하 참조]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후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논의는 80년대 초반까지

그것은 사회주의가 19세기 후반 한국에 최초로 소개된 이래 80여년만의 일이다.

3)

그런데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는다’는 내적 논리는 한국인의 삶 속에서 종교의 모습으로 관철되어 나타난다. 사회주의가 더 이상 한국에서 설 땅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인간의 “노동”의 문제는 이제 “나사렛에서 손수 일하셨다는 예수그리스도”적 실천의 문제와 동일시 되어버리고, 그럼으로써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참여”의 문제로 치환되어 버린다. 노동자들이 이익달성을 위한 조직결성과 노동운동의 전개의 문제가 궁극에 있어서는 “교회의 가르침”³¹⁾으로 이해된다.

서구에서 사회주의가 기독교 교리와 경쟁에서 점차적으로 후자를 밀어내고 노동자들의 의식을 휘어잡는 역동적이고도 합리적인 이념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면, 한국에서는 바로 이러한 것의 역전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박정희 정권의 몰락의 서막이 되었던 1979년 8월초의 YH상사 봉제공장노동자들의 신민당(新民黨)사 농성사건(속칭 YH사건)에서 대표적으로 표현된다. 이 경우 한국에 나타났던 많은 사회주의적 성향의 정당이 이미 역사에서 사라진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최후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신민당이라는 보수야당이었던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문제는 첫째, 한국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YH노조를 “외부세력과의 연계 하에 행동해온 조직”³²⁾이라고 비난하는 사실에 있다.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해야 할 단체가 오히려 노동자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한국노총이 지칭한 ‘외부세력’이 그 어떤 사회주의적 성향의 단체가 아니라 바로 종교계를 의미한다는 사실에 있다. 즉 “국가의 행동에 의해 희생된 사람을 묻는”자 혹은 “국가라는 차에 깔려 희생이 된 사람을 위해 봉사할 뿐만 아니라 그 차를 정지”³³⁾시켜야 할 자는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교회가 된다.

기독교나 교회가 70년대에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많은 역할을 했다는

20년 동안 더 이상 한국역사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31) 통일방직 복지투쟁위원회(위음), 『동일방직 노동조합운동사』(돌베개 1985), 김수환 추기경의 추천사 8쪽 참조

32) 전 YH노동조합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YH노동조합사』(형성사, 1984), 225쪽.

33) 한승헌(외), 『유신체제와 민주화운동』(춘추사, 1984), 84쪽.

점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다음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중중 용감하게도 중앙정보부에 도전하면서 노동문제를 국가의 경제개발정책과 결부시켜 비판하기까지 했던 도시산업선교회나 카톨릭노동청년회가 구체적인 산업문제에서 제기되는 요구를 일반적이고 정치적인 요구로 바꾸려고도 하지 않았고,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윤리에 대한 어떤 회의도 품지 않았으며 이념상의 어떤 대안적인 방침도 제시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이 노동자들에게 설교한 것은 근본적으로 경제적 노동조합주의였고, 이것의 함의는 산업평화와 생산성을 연계시키려 하였던, 바로 국가 엘리트들이 품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목표였던 것이다.”³⁴⁾

반공으로 나타나는 사회주의에 대한 거부와 그리고 그것의 종교적 삶 속으로의 투영이 한국에서 사회주의를 이해하는 데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중요한 양상이라면, 그러한 양상은 우리의 의식문화의 문제와 떨어져서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생각만큼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도 없을 것이다. “우리 한국민족과 이백 년의 인연을 맺고 있는 기독교는 이제 단순한 외래사조나 외래종교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깊이 지배하는 핵심적인 사상으로서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바탕”³⁵⁾이 되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식문화와 사회주의 배척 간에는 어떤 의미 있는 ‘친화성’(Max Weber)이 있는 것일까? 본 논의는 이하 이에 대한 하나의 해석을 ‘가치자유’의 입장에서 시도할 것이다.

III. 이념과 현실

1. 이념

일반적으로 특정의 보다 고차적인 이념³⁶⁾이 발생하려면 이미 인간과 제도가 무

34) 최장집,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열음사, 1988), 88 쪽 이탤릭 강조는 인용자

35) 이인복, 「한국문학에 나타난 기독교사상 개관」, 이인복·강신주 편, 『한국문학과 카톨릭시즘』(우진출판사, 1990), 207쪽.

엇인지가 개념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우리는 이러한 서구적 근대성의 중요한 한 축을 자유주의로, 그리고 다른 한 축을 사회주의로 간주할 수 있는데, 전자에 대해 후자가 우위에 서 있다고 말할 때는 사회주의에 이미 ‘자유’라는 언어에 담겨있는 의미가 개념적으로 포착이 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전자는 후자에 비해 인간과 제도의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³⁷⁾ 또한 현실의 문제를 별개로 하고 논리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사회주의는 자유주의의 다음으로 등장했다는 의미에서 어쩌면 근대의 마지막 이념일 수 있다. 이처럼 니체(Freidrich Nietzsche)는 비판적 입장에서 사회주의를 “근대적 이념들의 최종결론(Schlußfolgerung)”³⁸⁾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설명했지만 사회주의는 하나의 합리적인 의식문화의 소산이자 그 자체로 하나의 합리적 세계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한국에서 사회주의가 서구의 경우에서처럼 내재적 논리로 전개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이전에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특징의 합리적—예컨대 사회주의 이전에 존재한 자유주의 같은³⁹⁾—세계상이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⁴⁰⁾ 우리의 전통에 널려있는, 구전을 통해서 혹은 민간설화를 통해서 아니면 소설이나 그 밖의 사회운동의 형식을 통해서 전해오는 모든 유토피아적 요소들이

36) Hegel, Georg W. Friedrich, *Enzye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Grundrisse*, Hamburg, 1969, §212~§215.

37) 무엇보다 사회주의가 포착하는 개인은 더 이상 추상적인 ‘자유’를 가진 개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소외된 인간으로서 개인으로 나타난다. 사회주의가 이러한 인간을 포착하기 위한, 기존의 철학과 과학을 지양한 이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8) Nietzsche, Friedrich, *Kritische Gesamtausgabe* VII(3), Berlin/ New York, 1974, p. 312.

39) 서구에서 자유주의로부터 사회주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관해서 혹은 양자의 밀접한 관계에 관해서는 Ruggiero, Guido de., *The History of European Liberalism*, R. G. Collingwood, Trans., Oxford Univ. Press, 1927. 무엇보다 pp. 381ff. 참조.

40) 사회주의 수용 당시는 물론이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수용되는 일제하에서도 우리에게 자유주의의 전통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다 완전한 논의가 되려면 한국에서 근대적 자유주의(그러므로 당연히 자본주의) 전개의 맥락 속에서 사회주의의 의미가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 국내에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간의 관계에 대하여 사상적으로 체계적 연구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구 소연방과학아카데미 동양학 연구소에서 1983년 간행된 G. D. 짜가이, 김병관(역), 『한국부르조아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형성 실학에서 일제 강점기까지』(인간사, 1990)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단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전적으로 사회주의의 이념적 기원으로 간주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세계상에 관해 말해도, 우리에게 사회주의의 도입 이전에 세계나 역사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이해방식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단지 중화(中華)에 대한 유일상(唯一像)만⁴¹⁾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모습을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한다면 많은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발전·진보개념과는 무관한 정태적인 성격의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시민사회(Hegel/Lorenz von Stein)⁴²⁾나 이를 대체할 만한 발전상으로서 ‘산업사회’(Saint-Simon)나 ‘민주주의(Toquville) 같은 미래상⁴³⁾이 애초에 결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전통적 지식인들—그들이 ‘이조의 인물’이든 ‘근대의 인물’⁴⁴⁾이든—어느 누구에게도 서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은 개념에 없었다. 이는 “새로운 언어의 창출에 실패’ 함으로써 “조선시기에 기록되었던 성리학, 실학과 같은 몇 번의 전환이 철학적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한⁴⁵⁾ 상황의 한 중요한 단면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사회주의를 이해하려면 한학 소양을 갖추고 유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몸에 익힌 ‘구지식층’과 대비되는, 소위 말하는 ‘신지식층⁴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의식문화도 앞서 언급된 전통의 틀 속에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여운형은 인민당 정강의 ‘나의 정견(政見)’ 부분에서 “우리는 과거에 삼강오륜을 배우고 직히여[지켜] 나왔으니 우리 당에서도 삼강오륜이 있어 우리는 그것을 직히[지켜] 나가겠다”고 밝힌다. 그는 경제문제에 있어 “개로공영(皆勞共榮)하고 무이독존(無而獨存)하여야 할 것”이라는 유교적 관념을 보여준다

41) 장현근, 「중화질서 재구축과 문명국가 건설 최익현·유인석의 위정척사사상」, 『정치사상연구』, 9집 가을호(2003) 참조

42) Hahn, Manfred, *Bürgerliche Optimismus im Untergang. Studien zu Lorenz Stein und Hegel*, München, 1969 참조

43) Aron, Raymond, *Die industrielle Gesellschaft*, Frankfurt am Main, 1964 참조

44) 이에 대해서는 이성계에서 시작하여 설태희(薛泰熙)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의 중요 인물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놓은 성낙훈(외), 『한국인물사』(양우당, 1983), 특히 3권 4권 5권 6권 그리고 7권 참조

45) 정해창, 「한국철학 방법론은 가능한가?」, 『정신문화연구』, 26권 2호(2003), 48쪽

46) 임경석, 「20세기 초 국제질서의 재편과 한국 신지식층의 대응 사회주의 지식인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43집(2003), 3-7쪽 참조

최고의 역설은 그가 “계급도덕”이 “절대로 없어져야 할 것”이며 “남녀노소가 일체 평등”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조선의 윤리와 도덕을 세계에 관철(冠絶)하다”⁴⁷⁾하여 유교를 옹호하는 데서 나타난다.

이러한 입장은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와 유교적 모습이 혼재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상 양자가 서로 섞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즉 유교(조선의 윤리와 도덕)와 사회주의(계급도덕의 폐지 남녀평등)가 이론상으로 서로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은 전자가 후자의 개념내용을 대체 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김창숙의 생각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읽어 낼 수 있다. 그는 “얼마 전부터 재외동포 청년학생들이 마르크스(Marx)의 학설을 애독하여 사상이 크게 변화했다고 운을 댄 뒤, 당시의 공산당 각파(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를 비난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나는 비록 저들 각파의 사람들과 접촉도 하고 마르크스·레닌(Lenin)·바쿠닌(Bakunin)·크로포트킨(Kropotkin) 등 제가의 학설도 읽어보았지만 전혀 취미가 붙지 않았다.”⁴⁸⁾

이상에서 다음과 같은 외연적 추론은 가능할 것이다. 사회주의가 유교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는 그 어떤 속성을 지닌 이념이 아니라면, 후자는 서구적 의미의 계몽사상에 상응하는 그 어떤 이념은 아닐 수 있다.

서구에서 사회주의의 개념내용은 ‘양분된 이상 의 결합⁴⁹⁾에 의해 성립된다. 그 결합은 구체적으로 철학과 과학의 종합으로 나타나는 합리성, 즉 계몽사상의 전통으로 소급되는 합리성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이론적으로 사회주의는 (유교와 기독교같은) 그 어떤 종교적 도덕에 토대를 두고 있기 보다는, 당대에 발전된 ‘자연과학’⁵⁰⁾에 토대를 두고 있다. 무엇보다 가족질서로부터 국가질서로 이어지는 일련의 체계를—그 체계가 동질적으로 나타나든 혹은 이질적으로 나타나든 간에⁵¹⁾—

47) 여운형, 앞의 글, 232~234쪽.

48) 김창숙, 심산사상연구회(역음), 『김창숙 문집』(성균관대출판부, 1999), 282~283쪽.

49) Hahn, Mafred·Sandkühler, Hans Jörg, ed., *Die Verteilung der Vernunft: Philosophie und empirisches Wissen im 18. und 19. Jahrhundert*, Köln, 1982 참조

50) Han, Seungwan, *Marx in epistemischen Kontexten: eine Dialektik der Philosophie und der ‘postiven Wissenschaften’*, Frankfurt am Main, 1995 참조

51) 이상익은 가족원리와 국가원리의 이질성을 강조한다. 이상익, 「유교에 있어서 가족과 국가」, 『정

강조하는 유교교리는 자연권과 계약사상의 토대를 이루는 개인에 대한 개념과 이 개인이 만들어 내는 사회에 대한 이념⁵²⁾과는 다른 사상체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의 문제를 별개로 한다면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주의가 체계를 달리하는 유교와 관계를 가질 의미 있는 이유는 없을 것이다.

부연하자면,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는 오륜(군주 신하, 아바 자식, 지아바 지어미, 형-아우, 친구-친구의 관계)이라는 보편적 도(道)에 기반해 일종의 동양적 자연법사상을 추론해 내는데, 그에게도 동양에서 자연법사상의 토대는 어디까지나 “하늘”과 “땅”이다.⁵³⁾ 즉 그 토대는 서구에서와 같이 ‘개인’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보자면 사회주의가 한국에 수용된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개념을 토대로 한 유교가 개인개념을 지양한 사회주의와 결합된다는 의미하는데, 항상 양자의 속성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⁵⁴⁾

하늘과 땅은 ‘오상(五常)’의 원리들(인, 의, 지, 예, 신)과 관계한다는 점에서, 그러므로 그것들이 “기독교의 가르침”과 같은 종교와는 관계를 가질 수는 있어도,⁵⁵⁾ 과학으로서 사회주의와는 연관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한결같이 자연 조화적 순환의 경지를 이상시하는” 유·불·도의 사상, 특히 “역리(易理)에 기초한 천일합일(天人合一)”의 유교적 가르침은⁵⁶⁾ 실제로도 기독교와 가장 잘 양립할 수 있는 이념으로 판명된다.

정진홍⁵⁷⁾의 생각은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고 있는 듯 하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종교들은 불교, 도교, 유교 등에서 자신에게 적합성을 가진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치사상연구』, 9집 가을호(2003) 참조

- 52) 그것은 헤겔의 표현을 빌면 고대적 공동체의 원칙에 비해 “보다 높은 근대의 원칙”, 즉 계몽사상의 토대를 이루는 원자의 원칙이다. Hegel, Georg W. Friedrich, *Jenaer Realphilosophie. Vorlesungsmanuskripte zur Philosophie der Natur und des Geistes von 1805~1806*, Hamburg, 1969, p. 251.
- 53)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역), 『일본정치사상사연구』(통나무, 1995), 325 쪽 이하
- 54) 중국의 예에서 확인될 수 있듯이 우리가 쑨원(孫文)의 삼민주의를 일종의 사회주의로 간주할 경우, 다음의 주장은 전혀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최근세에 국제적인 압력이 중국사에 점차 근대적=시민적인 것을 침투시켰을 때, 유교는 비로소 삼민주의 [...] 라는 자기와 완전히 계통을 달리하는 사회사상과 만나게 되었다.” 마루야마 마사오, 위의 책 109 쪽
- 55) 이점을 마루야마 마사오는 강조하는 듯하다. 마루야마 마사오, 위의 책 328 쪽
- 56) 윤사순, 『동양사상과 한국사상』(을유문화사, 1987), 155 쪽
- 57) 정진홍, 『한국의 종교와 한국인』, 『한국문화연구』(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1), 25 쪽

강조”하면서 수용해 왔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교와의 만남에서 “더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그 종교들은 불교이고 도교이고 유교인 채 하늘—경험적이고 힘 지향적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더더욱 하늘—경험적이고 힘 지향적이다. 그러한 구조적 일치가 역사·사회적 요청과 상응하면서 그리스도교의 성공이랄 수 있는 현상을 낳게 된 것이다.”⁵⁸⁾

2. 현실

앞서 사회주의는 헤겔적 의미의 ‘이념’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사회주의를 ‘근대적 이념들의 최종결론’으로 생각한 니체의 생각도 문제 이해의 좋은 단서를 제공해 준다. 즉 이념으로서 사회주의에는 인간역사의 모든 발전적·진보적 요소가 종합되어 있던지(헤겔적 의미), 아니면 최종적인 파멸의 요소가 종합되어 있던지(니체적 의미) 둘 중 하나 일 것이다. 니체적 의미에서 보자면, 결과적으로는 1884년에 우리에게 최초로 소개된 사회주의는 남북한 모두의 경우(다소 간) 파멸적인 것으로 판명된다. 남한의 경우 사회주의는 반공이데올로기의 탄생의 계기가 되며, 북한의 경우도 사회주의는 소련이나 동 유럽식 붕괴를 거쳐 민주주의로의 전환의 형태를 겪지도 못하고 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사회주의는 남북한 모두에 있어 ‘귀천과 빈부를 평등하게 하는’ 것이기 보다는 ‘국법을 문란케 하고 생민에게 해를 끼치는’ 혹은 ‘백성들에게 해독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난다

남한의 경우 박정희의 생각 속에는 모든 문제의 이해를 위한 핵심이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 우리의 것, 한국적인 것 한국인적인 것은 점차 퇴화소멸 하여가고, 대신 미국적인 것 서구적인 것 그리고 일본적인 것이 등장하려하는 데는 끝없는 분노를 누를 길이 없었다.”⁵⁹⁾ 박정희 식의 ‘시대정신’ 속에서 포착되는

58) 유교와 기독교 사이에 “부분적 친화성”이 존재하는 것을 “일정하게 인정 하더라도 그것이 기독교가 한국사회에 범람하게 된 역사적 이유와 배경을 “충분하” 설명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양자 사이에 “근원적 대립”을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김진석 『한국의 사상의 자리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 『한국학연구』, 제12집(2003), 13~14쪽. 여기서 유교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종교적 속성이 사회주의 보다 기독교와 친화성을 갖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9)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지구촌, 1993), 83쪽. 이 책의 초판은 1963년 9월에 간행 됨

사회(민주)주의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민주주의는 “왜곡된 위장 민주주의”, 다시 말해 “실로 피와 살과 뼈를 도리는 유혈의 투쟁”의 대상이자 “무자비한 탄압, 섬멸적 투쟁”의 대상으로서 “작 60)인 것이다. 박정희 식의 시대정신은 이미 최운하의 생각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그는 무엇보다 “인륜을 모독”한 “공산도배(徒輩)” 내지는 “매국매족 도배의 심장을 척결”할 것을 주장한다.⁶¹⁾

“이른바 민족개념만으로서의 역사전개 62)는 한국의 근대성을 전형적으로 특징 짓는 현상이다. 우리의 의식문화는 우리의 것을 지향하는 모든 형태의 이념들과 친화성을 갖는다. 그렇게 결합된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념과 철학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된다. 70년대에 “유교적 윤리규범에서 직접 도출된 충과 효의 전통적 미덕”이 부활되고,⁶³⁾ 그것이 노동자들의 “피땀”과 결합되면서 “애국주의적” 국가발전의 중요한 정신적·윤리적 토대⁶⁴⁾가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형태의 실천적 도덕운동은 이미 1910년대와 20년대의 안창호의 “민족개조” 개념과 이광수의 “민족성개조”⁶⁵⁾개념 속에서 짝이 트고 있었다.

북한의 경우 세습통치 그리고 김일성 사망 후의 김정일의 유사(類似) 3년상 행태 등에서도 특징적으로 드러나지만 유교가 사회주의와 관계하고 있는 모습은 기형적이다. 요컨대 “아들<子>이 아버지<父>에 대한 복종을 모든 인륜의 기본에 두고, 군주와 신하<君臣>·지아비와 지어미<夫婦>·나이든 사람과 어린 사람<長幼(兄弟)>과 같은 특수한 인간관계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대비시키고 위아래와 존귀하고 비천함<上下尊卑>과 결합시켜 그 엄중한 구별<別>을 주장하는 유교도덕”⁶⁶⁾이 사회주의와 결합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은 정통성 확보를 위해 개항 후의 짧은 기간의 역사에 “세계사적 발전법칙”을 적용, 1920년대부터 자신의 역사를 “부르주아 혁명단계”를 지양하는 “사회주의

60) 위의 책, 284, 285 쪽

61) 최운하의 장복성의 『조선공산당과쟁사』(돌베개, 1988) 서문

62) 김윤식, 「1910년 이후의 학술·문예」, 『한국사론5』(국사편찬위원회, 1983), 176 쪽

63) 그것은 박정희의 큰딸인 박근혜의 후원아래 전개된 70년대 중반의 ‘새마을운동’에서 구체화 된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것은 영문판 Park, Keun Hae, *The New Spirit Movement, The Naeway Business Journal and Korea Herald Inc.*, 1979. 참조

64) 최장집, 앞의 책, 184~194쪽.

65) 한점돌, 『한국근대소설의 정신사적 이해』(국학자료원 1993), 72 쪽

66) 마루야마 마사오, 앞의 책, 108쪽.

단계”⁶⁷⁾로 규정하고 있다. 역사에 이러한 식으로 과학적으로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사회주의는 최고의 합리적인 의식형태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러한 의식형태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기원전 수백 년 전의 제자백가(諸子百家)의 논쟁을 거쳐 그 체계가 갖추어진 (그래서 예컨대 베버가 이미 기독교의 예를 들어 설명했듯이 역사과정 속에서 이미 비합리적인 영역으로 밀려날 나 있어야 할 그러한) 유교도덕과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점에서 주체사상이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사상”과는 거리가 먼 “궁색하고 공허한 유인론(唯人論)”⁶⁸⁾이라는 지적은 적절하다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식 사회주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사상(합리성)과 결합될 수 있는 것이 유교중심적인 의식에 관한 한 우리에게는 없다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주체사상의 “유일사상에서 전일적 체계로의 변화”⁶⁹⁾ 현상은 유교가 한국에서 수백 년을 그러한 형태로 지속되어 왔던 현상을 반영한다.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당 사상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상사업을 반드시 조선혁명의 리익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 조선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력사를 알아야 하며 조선의 지리를 알아야 하며 조선인민의 풍속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민을 그들의 구미에 맞도록 교양할 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향토와 조국을 열렬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⁷⁰⁾ 주체사상 역시 따지고 보면 박정희식의 ‘우리의 것’과 ‘한국인적인 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헤겔이 말한 ‘이성적인 것(das Vernünftige)’의 생기(生起)는 북한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현실에 상응하지 않는 사회주의가 유럽에서 1980년대 말·90년대 초에 종말을 고하지만, 중국에서는 사회주의가 대량학살(천안문 사태)을 통해 유지 되고, 북한에서는 사회주의가 아직도 가장 강력하고도 폐쇄적인 왕조체제의 형태로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과거로 돌아가 보자. 대략 250년 전에 표출된 인간의 정치적 자유문제, 즉

67) 이태진, 『조선유교사회사론』(지식산업사, 1989), 263쪽

68)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사회발전연구소, 1987), 11~15쪽

69) 윤해성, 「주체사상의 체계화 과정과 ‘완성’」, 이진경(역음), 『주체사상비판 1』(새길, 1989), 83쪽.

70) 김일성, 『북한의 주체교육사상』 자료편, 김형찬(한백사, 1990), 192쪽

“아주 중요치 않은” 보잘 것 없는 양의 차(茶)관세의 부과와 더불어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자유”가 상실될 거라는 미국인의 감정이 미국혁명을 만들었다는 것⁷¹⁾을 우리는 유교적 의식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 낼 수 있을까?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자. 동구권에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면서 서구적 계몽의 전통에 따라 신속하게 ‘civil society’⁷²⁾란 개념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북한이나 중국의 경우와 비교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IV. 맺는 말

독일의 브레멘에서 12명의 엽권련 제조공들이 ‘앞으로(Vorwärts)’ 라는 자신들의 노동자조직을 결성한 것은 1846년이였다. 조선의 성진(城津)항에서 47명의 부두노동자들이 ‘성진부두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은 이보다 50년 정도 뒤진 1898년⁷³⁾ 사회주의가 한국에 소개된지 14년이 지난 후였다. 조선의 성진이나 유럽의 브레멘에서 임금노동자들이 이익도모와 평등권쟁취 등을 목적으로 자신들의 조직을 결성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한국에서도 서구의 전형적 근대적 현상인 노동의 조직화현상이 보인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임금노동자들에 의해 최초의 노동조합이 결성된 후 백 수십 년이 지난 후인 1964년에 사회주의는 브레멘에서 다음과 같은 역사적 의미를 획득한다. 독일 사회민주주의당은 “노동자당이라는 자신의 원래 위치에서 국민정당으로 확장된다. 확고한 기반은 과거에서처럼 미래에도 노동자집단

71) Hegel, Georg W. Friedrich, *Dokumente zu Hegels Entwicklung*. J. Hoffmeister, ed., Stuttgart, 1969, pp. 249.

72) 이처럼 한국에서 1990년대 현실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와 더불어 ‘civil society’ 개념[Cohen, Jean L. · Arato, Andrew, *Civil Society & Political Theory*, MIT Press, 1994 참조]이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독일어로 ‘bürgerliche Gesellschaft’로 개념화되는 ‘civil society’는 프랑스 혁명과 함께 등장할 당시에는 보수주의자들에게는 불온하게 받아들여진 혁명적 개념이었다.

73) 그리고 바로 이해 한국 최초의 근대적 노동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부두노동자들의 노사쟁의가 목포에서 발생한다. 전국부두노동조합(편), 『한국부두노동운동백년사』(전국부두노동조합 1979) 참조. 일본에서는 이보다 1년 앞선 1897년에 미국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소수의 지식인들에 의해 ‘勞動組合期成會’가 설립됨으로써 이후 일본노동운동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

이고 그렇게 남을 것이다.”⁷⁴⁾

사회주의가 한국에 소개된 지 거의 100년이 지난 1980년대 초반 한국의 한 학자는,⁷⁵⁾ “지금에 와서야” 우리가 “노동의 문제를 통하여 [...] 개인과 집단 또는 계층들이 각각 다르게 경험하였던 [...] 역사와 사회라는 집적물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집적물’ 속에서 우리는 사회주의의 근대성의 아무런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의 근대성은 70년대의 예에서 보듯 ‘국가발전’, ‘국가건설’, ‘국가방위’, ‘국가안보’ 등으로, 그리고 이를 위한 전통의식문화, 특히 유교적 가치의 계발(啓發)과 진화 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1970년 11월 13일에 있는 노동자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은 이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서구적 조건에서라면 전태일은 계몽의 전통에 선 사회주의 이념을 체득하고 사회주의자로 성장해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생시몽(Claude Henri de Saint-Simon)이나 푸리에(Charles Fourier) 혹은 오웬(Robert Owen)과 같은 사회주의자가 되었을 지도 모른다. 혹은 자살의 극단성이란 측면에서 바뵈프(François Noël Babeuf) 정도의 인물은 되었을 것이다. 사회문제의 해결은 현실에 대한 저항의 문제이자 구체적인 미래사회의 건립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이성적 사유와 개념(Hegel)의 전개와 그것의 토대인 철학과 과학이었을 것이다. 그가 정말 필요로 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전형적인 근대 서구의 산물인 사회주의가 한국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해답을 찾고자 했다. 한국인은 사회주의를 통해 하나의 선진적이고도 근대적인 인간의 권리개념을 새롭게 발견한다. 그러나 그 개념이 발견되어진지 백년이 흐른 뒤에도 전태일 같은 노동자의 의식세계로 그러한 권리개념은 들어오지 않는다. 사상과 학문으로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운동으로서 사회주의가 한국에서 다시 전개되는 시점은 1980년대 초반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에 관한 어떤 의미 있는 철학적·이론적인 텍스트들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물론 주체사상이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

74) Paulmann, Christian, *ibid.*, p. 164.

75) 최장집, 앞의 책, 책머리에

참고문헌

- 고준석, 『남로당사』. 서울: 세계, 1988.
- 고준석, 김영철(옮김), 『조선공산당과 코민테른』. 서울: 공동체, 1989.
- 김남식, 『남로당연구』. 서울: 돌베개, 1984.
- 김남식(역음), 『남로당 연구 II 자료편』. 서울: 돌베개, 1988.
- 김남식·심지연(편저), 『박헌영 노선비판』. 서울: 세계, 1986.
- 김동환, 「조선 혁명의 현단계: <부루조아 민주주의 혁명>에 관한 일고」 심지연 『조선혁명론 해방정국 논쟁사2』 자료 5. 서울: 실천신서, 1987.
- 김윤식, 「1910년 이후의 학술·문예」. 『한국사론5』. 과찬 국사편찬위원회, 1983.
- 김형찬, 「북한의 주체교육사상」. 서울: 한백사, 1990.
- 김진석, 「한국의 사상의 자리,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 『한국학연구』 제2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 김창숙, 심산사상연구회(역음), 『김창숙 문존』.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9.
- 김창순·김준엽,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I~V』. 서울: 청계연구소, 1972 ff.
- 김학준, 『이동화 평전. 한 사회민주주의자의 생애』. 서울: 민음사, 1987.
- 동일방직 복직투쟁위원회(역음), 『동일방직 노동조합운동사』. 서울: 돌베개, 1985.
-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김석근(역), 『일본정치사상사연구』. 서울: 통나무, 1995.
-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 서울: 지구촌, 1993(1963).
- 박헌영, 「<파시즘>을 근절하자」. 김남식·심지연(편저), 『박헌영 노선비판』 자료 82. 서울: 세계, 1986.
- 박헌영, 「李承晩氏의 <데마>를 폭로한다(上, 下)」. 김남식·심지연(편저), 『박헌영 노선비판』 자료 83. 서울: 세계, 1986.
- 배병삼, 「박지원의 유토피아: ‘허생전’의 정치학적 독해」. 『정치사상연구』 9집 가을호, 2003.
- 배성찬(편), 『식민지시대 사회운동론 연구』. 서울: 돌베개, 1987.
- 백남운, 「조선민족 진로」. 심지연 『조선혁명론 해방정국 논쟁사2』 자료 11. 서울: 실천신서, 1987.
- 서대숙, 현대사연구회(역), 『한국공산주의 운동사연구』. 대구: 화다, 1985.
- 서중석, 『한국 근현대의 민족문제 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1989.
- 성낙훈(외), 『한국인물사』 3권~7권. 서울: 양우당, 1983.
- 스칼라피노·이정식, 한홍구(옮김), 『한국공산주의 운동사1: 식민지시대 편』. 서울: 돌베개, 1986.
- 신복룡, 『전봉준 평전』. 서울: 지식산업사, 1996.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서울: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신주백(편), 『1930년대 민족해방운동론 연구』(전2권). 서울: 새길, 1989~1990.
- 심지연, 『조선혁명론: 해방정국 논쟁사 2』. 서울: 실천신서, 1987.
- 심지연, 『인민당 연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1991.
- 여운형, 「인민당의 노선」. 심지연, 『인민당 연구』 제2부 자료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1991.
- M. 김, 이준형(역), 『일제하 극동 시베리아의 한인사회주의자들』. 서울: 역사비평사, 1990.
- 역사학연구소,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연구: 현황과 전망』.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7.
- 윤사순, 『동양사상과 한국사상』. 서울: 을유문화사, 1987(1984).
- 윤해성, 「주체사상의 체계화 과정과 ‘완성」. 이진경(엮음), 『주체사상비판 1』. 서울: 새길, 1989.
- 이만규, 『여운형선생 투쟁사』. 서울: 민주문화사, 1946.
- 이만송, 한대희(편역), 『식민지시대 사회운동』. 서울: 한울림, 1986.
- 이상익, 「유교에 있어서 가족과 국가」. 『정치사상연구』 9집 가을호, 2003.
- 이인복, 「한국문학에 나타난 기독교사상 개관」. 이인복·강신주(편), 『한국문학과 카톨릭시즘』. 서울: 우진출판사, 1990.
- 이영석, 『죽산 조봉암: 그의 슬픈 삶과 죽음의 이야기』. 서울: 원음출판사, 1983.
- 이정식, 김성환(옮김), 『조선노동당 역사』. 서울: 이론과 실천, 1986.
- 이태진, 『조선유교사회사론』. 서울: 지식산업사, 1989.
- 이현주, 『한국사회주의 세력의 형성: 1919~1923』. 서울: 일조각, 2003.
- 임경석, 『한국사회주의의 기원』. 서울: 역사비평사, 2003.
- 임경석, 「20세기 초 국제질서의 재편과 한국 신지식층의 대응: 사회주의 지식인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43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3.
- 임영태(편), 『식민지시대 한국사회와 운동』. 서울: 사계절, 1985.
- 장복성, 『조선공산당파쟁사』. 편집부(편), 『현대사 자료집 3』. 서울: 돌베개, 1983.
- 장현근, 「중화질서 재구축과 문명국가 건설: 최익현·유인석의 위정척사사상」. 『정치사상연구』 9집 가을호, 2003.
- 전국부두노동조합(편), 『한국부두노동운동백년사』. 전국부두노동조합, 1979.
- 전 YH노동조합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엮음), 『YH노동조합사』. 서울: 형성사, 1984.
- 정용화, 「한국인의 근대적 자아형성과 오리엔탈리즘」. 『정치사상연구』 10집 1호 봄호, 2004.
- 정진홍, 「한국의 종교와 한국인」. 『한국문화연구』 1.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1.
- 정태영, 『조봉암과 진보당』. 서울: 한길사, 1991.
- 정해창, 「한국철학 방법론은 가능한가?」. 『정신문화연구』 26권 2호, 정신문화연구원, 2003.

- 조봉암, 「진보당의 강령정책」. 정태영, 『조봉암과 진보당』. 제5부 자료집. 서울: 한길사, 1991.
- 지중세(역편), 『조선사상범 검거 실화집』. 서울: 돌베개, 1984.
- G. D. 짜가이, 김병린(역), 『한국부르조아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형성 실학에서 일제 강점기까지』. 인간사, 1990.
- 최장집,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서울: 열음사, 1988.
- 최치원, 「서구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정치사상: 문화통합(Kultursynthese)과 히스토리(Historie)의 전개모색을 위하여」. 『동서연구』 15 권 2 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3.
- 한국역사연구회 1930년대 연구반, 『일제하 사회주의 운동사』. 서울: 한길사, 1991.
- 한승헌(외), 『유신체제와 민주화운동』. 서울: 춘추사, 1984.
- 한점돌, 『한국근대소설의 정신사적 이해』. 서울: 국학자료원 1993.
- Aron, Raymond, *Die industrielle Gesellschaft. Aus dem Französischen*. Frankfurt am Main, 1964.
- Cohen, Jean L. · Arato, Andrew, *Civil Society & Political Theory*. MIT Press, 1994.
- Hahn, Manfred, *Bürgerliche Optimismus im Untergang. Studien zu Lorenz Stein und Hegel*. München, 1969.
- Hahn, Manfred · Sandkühler, Hans jörg, ed., *Die Verteilung der Vernunft: Philosophie und empirisches Wissen im 18. und 19. Jahrhundert*. K ðn, 1982.
- Hegel, G. W. Friedrich,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es, J. Hoffmeister, ed., *Unveränd. Nachd. 1967 der 4., Aufl., von 1955*. Hamburg, 1995.
- Hegel, G. W. Friedrich, *Berliner Schriften*. J. Hoffmeister, ed., Hamburg, 1956.
- Hegel, G. W. Friedrich, *Encyc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m Grundrisse*. Friedhelm Nicolin, ed., 7., durchges. Aufl. erneut durchges. Nachdr. Hamburg, 1969.
- Hegel, G. W. Friedrich, *Jenaer Realphilosophie. Voslesungsmanuskripte zur Philosophie der Natur und des Geistes von 1805~1806*. J. Hoffmeister, ed., Hamburg, 1969.
- Hegel, G. W. Friedrich, *Dokumente zu Hegels Entwicklung*. J. Hoffmeister, ed., Stuttgart, 1969.
- Han, Seungwan, *Marx in epistemischen Kontexten: eine Dialektik der Philosophie und der 'positiven Wissenschaften'*. Frankfurt am Main, 1995.
- Hobsbawm, Eric, *Age of Extremes. The Short Twentieth Century 1914~1991*. London, 1997(1994).
- Hofmann, Werner, *Ideengeschichte der sozialen Bewegung*. Unter Mitw. von Wolfgang Abendroth u. Iring Fetscher, 6., erw. Aufl. Berlin/New York, 1979.

- Marx, Karl · Engels Friedrich, *MEW Bd. 4*. 5. Aufl. unveränd. Nachdr. der 1. Aufl. 1959, Berlin, 1959.
- Nietzsche, Friedrich, *Kritische Gesamtausgabe VII(3)*. Giorgio Colli · Mazzino Montinari, ed., Berlin/ New York, 1974.
- Park, Keun Hae, *The New Spirit Movement*. The Naeway Business Journal and Korea Herald Inc., 1979.
- Paulmann, Christian, *Die Sozialdemokratie in Bremen 1964~1864*. Bremen, 1964.
- Ramm, Thilo, *Die grossen Sozialisten als Rechts-und Sozialphilosophen, Bd. 1. Die Vorläufer Die Theoretiker des Endstadiums*. Stuttgart. 1955.
- Ruggiero, Guido de., *The History of European Liberalism*, R. G. Collingwood (Trans.). Oxford Univ. Press, 1927.
- Wels, Otto. 1933. *Rede zur Begründung der Ablehnung des Ermächtigungsgesetzes* (Reichstagssitzung vom 23. März 1933 in der Berliner Krolloper)<http://www.dhm.de/lemo/html/dokumente/wels/index.html>(검색일 2004. 5. 22).

● 투고일 : 2005. 4. 21.

● 심사완료일 : 2005. 11. 30.

● 주제어(keyword) : 사회주의(socialism), 합리성(rationality), 근대(modernity), 문화(culture), 이념(idee)